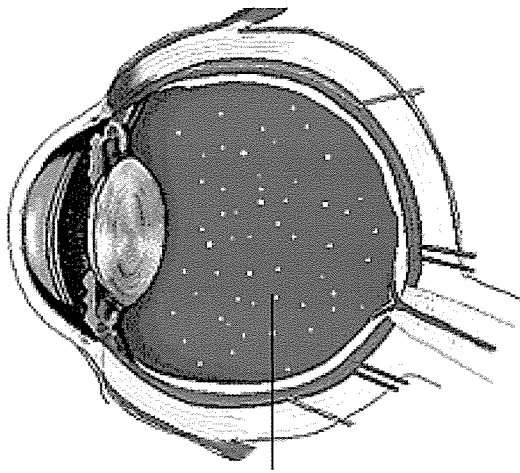


비문증 (飛蚊症)



초자체의 가벼운 혼탁이 있을 때 발생함

유발 원인

- 정상인에서도 발생 가능
- 청소년 이후의 노화현상
- 초자체 등맥 유잔
- 망막의 혈액흐름이 고르지 못할 때
- 초자체 혼탁을 일으키는 안과 질병들

비문증이란?

우리의 눈은 탁구공만한 크기로 동그랗게 생겼으며, 동그란 모양을 유지해주기 위해 눈 속에는 초자체라는 젤리 모양의 투명한 액체가 가득 들어 있다. 이 초자체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혼탁이 생기거나 이물질이 나타나는 경우 망막에 그림자가 비쳐 눈앞에 무엇인가가 떠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눈앞에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비문증(飛蚊症)이라고 부른다.

비문증은 왜 생기나?

비문증의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적으로 생기며 연령이 많아지면서 더욱 잘 나타난다. 대부분 노

화 때문에 초자체에 얼룩이 생겨 나타난다. 나이가 들에 따라 초자체의 일부분이 수분과 섬유질로 분리되어 초자체가 혼탁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 섬유가 초자체 안을 동동 떠다니게 되고 그것이 망막에 그림자를 비추기 때문에 눈앞에 실이 떠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다.

이런 생리적인 비문증은 40세가 넘으면 나타나기 시작하여 50~60대에는 꽤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특히 근시가 심한 사람은 청년기 이후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그 외 망막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근시가 있는 사람, 백내장 수술 후, 눈 속에 출혈이나 염증을 앓는 경우에는 대부분 비문증상이 있다.

||| 비문증의 증상은?

초자체라는 곳에 부유 물질이 생기는 것으로 여러 개 일 수 있으며 갖가지 형태로 변할 수도 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다니면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는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시선의 중심에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옆에 있을 수도 있다.

||| 비문증은 어떻게 치료하나?

비문증의 증상, 즉 눈앞에 떠다니는 물체를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 떠다니는 물체의 숫자나 크기가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별로 문제가 없지만, 숫자가 갑자기 셀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면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안과외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심각한 경우는 망막이 박리되는 질환으로써 떠다니는 물체의 숫자가 많아짐과 동시에 눈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는 현상을 느끼게 된다.

눈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는 증상은 편두통이 있어도 나타나며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이 증상만 갖고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번갯불 증상과 동시에 반드시 눈앞에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 주의해야 한다. 망막의 혈류가 고르지 못하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약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문증은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망막박리나 포도막염, 초자체 출혈 등의 전구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이것이 궁금해요 (FAQ)

Q : 눈앞에 날아다니는 듯한 게 많은 편입니다. 제가 신경이 예민한 편이라 신경이 쓰입니다. 합병증 유발되는 경우가 아니면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적혔던데요. 신경이 굉장히 심하게 쓰여서 걱정입니다.

A :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비문증은 시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보통은 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드물게는 초자체 출혈이나 출혈을 동반한 후 초자체 박리, 망막박리 등의 치료가 필요한 안질환도 비문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과적인 정밀 진찰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HealthKorea™ 건강샘〉

